

'사제동행전-이건용과 한국현대미술'

세계적 현대실험미술 거장 이견용 화백 특별기획전시 국립군산대 미술관에서 19일까지 개최

국내 제1세대 행위예술가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실험미술의 거장인 이견용 화백(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에서 '사제동행전-이견용과 한국현대미술' 특별기획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이견용 교수의 Bodyscape 시리즈 중 작품 2점과 동문 작가 및 재직 교수들 44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개막식은 지난 5일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과 이견용 교수, 대학 동문,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고, 작품전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 참여한 이견용 화백은 "사제동행전을 통해 제자, 동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국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들을 배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사제동행전은 작가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진작가부터 초기 동문까지 함께 모여 국립군산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계획 중인 이견용미술관 추진 등 중서부지역 예술활동의 코어로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희 미술관장은 "우리 미술관에서 한국실험미술 거장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문작가와 재직 교수가 하나 되어 전시를 진행하는 특별기획행사를 마련했는데,



국내 제1세대 행위예술가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실험미술의 거장인 이견용 화백(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에서 '사제동행전-이견용과 한국현대미술' 특별기획전시를 열고 있다.

이는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이 지역문화와 한국현대미술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은 등록미술관 등락을 준비하며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견용 화백을 기리기 위한 '이견용현대미술관'을 추진 준비 중이고,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며

중서부 문화예술 허브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견용 교수(1942~)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 교수는 오브제, 설치, 실험드로잉, 퍼포먼스로 대변되는 실험예술로 한걸음 뛰어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관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대표작 한자리서 만난다

16일 '송년국악잔치'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송년국악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국악 잔치에는 국악연주단과 명인들이 함께 출연. 한 해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무대를 가득 채운 대표작을 엄선하여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연희부의 '판굿'을 시작으로 송년공연의 문을 연다.

이어 국립민속국악원의 교육사업인 '틴틴틴 창극교실'을 통해 배출된 창극 꿈나무들이 꾸미는 '홍보전' 무대와 명인초청무대 기악합주 '시나위', 꽃부채를 들고 추는 춤 '화선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남도민요 '육자배기', 지난 7월 민속악축제에서 초연한 기악합주 '삼색 꽃 이야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https://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신년 달력 나눔' 행사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담겨진 연말의 정취를 전한다.

한편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이번 공연



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선물같은 하루 선사

16일 '크리스마스 파티 인 뮤지엄' 개최... 공연·현장 이벤트 등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JMA FRIENDS EVENT '크리스마스 파티 인 뮤지엄-선물같은 하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소년소녀합창단'이 선보이는 티 없이 맑은 음악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무대를 시작으로 예술단체 '해화(諧和)'의 퓨전국악 공연과 성악트리오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이 이어진다.

그리고 관객들이 공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미술관을 방문한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선물같은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거대서사와 권력에 저항하는 카자흐스탄의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는 전시 '가운데땅 이야기', 대상의 핵심과 자신의 해석으로써 의미주의 작품 세계를 제시하는 전시 '그러므로 풍경, 의미주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2024년 3월 1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와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과 JMA FRIENDS 공식 SNS(jma_friends), 페이스북(jmamuseum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애니콘서트' 전주서 열려

현대적으로 해석한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OST 등 선보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이 주관하는 '애니콘서트' 공연이 지난 9일 오후 4시 전주지역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지난 11월 극단 '초인'이 선보인 '스프레이'와 함께 '2023년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유치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연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음악감독 송희승)의 '애니콘서트'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과 영화, 드라마 OST, 전래동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선보였다. 여기에 한국 첼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음악인 9명이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로 품격을 더했다.

특히 콘서트 첫 곡 'A Whole New World'는 1992년 개봉한 디즈니의 명작 알라딘에 삽입된 곡으로 주인공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양탄자를 타고 밤하늘을 날며 부르는 음악이다. 두 번째 곡인 'Beauty and the Beast'는 1991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OST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이다. 이어 인어공주 OST 중 'Under the Sea',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와 영화와 캐리비언의 해적 OST 등을 연주했다.

한편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지정 예술전문단체로 선정, 대중과 평론계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확고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